

“업무상 긴장·스트레스와 관련”

그러나 실제로 취업을 해 보
호시실에서 나간 여성은 6명에
불과해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한
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아직도
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나
타났다. **〈김의겸 기자〉**

釜山 가정집 3男妹 살해

범인인 어머니情夫

92.
10.26

할아만나취 암살
[釜山] 釜山西구西大新
동 대신아파트 3남매 피
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
26일 숨진 3남매 어머니
를 찾아서(43)와 내연의 관
계를 맺어온金某씨(38)선
원·폭력 등 전과 1범·彰
島구蓬萊동3가11-1)를
京畿道漣川군南浦進村리
한탄강 교량공사 노동자
숙소에서 검거, 범행일체
를 자백받고 범행에 사용
한 식칼과 피 묻은 신발 등
을 증거물로 압수했다.

경찰에 따르면金씨는 지난
4월말 釜山西구 바다오
비주점에서 일하던 차씨와
정을 통한 후 내연의 관계를
맺어왔다. 지난 9월부터
차씨가 잘 만나 주지않는데
다 차씨의 3남매조차 자신
을 멀리하자 지난 21일 밤
11시반경 서구 西大新동2
가 대신아파트 207호 차
씨 집에 침입, 차씨의 세자
녀를 살해했다는 것이다.

金씨는 범행후 서울永登
浦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형
의 이력을으로 한탄강 교량
공사장에 취업, 숨어지내다
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.